

인세인  
지하철 좌석 자리잡기  
1인 5사이클  
배경은 서울의 지하철

약칭은 지좌자세인 지좌자인세인으로 부탁드립니다.

#### PC1

공개사명

당신은 회사원이다. 오늘은 특히 일이 많아 몸이 피곤하다. 콩나물시루처럼 뻥뻥하게  
자리가 찬 지하철에 겨우 몸을 들이밀어 지하철에 탔다. 빨리 자리가 나서 앉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당신의 사명은 지하철에 앉아서 타는 것이다.

#### PC1

비밀사명

쇼크 없음

당신은 일주일 넘게(정확히 말하면 11일째) 지하철 좌석에 앉지도 못한 채로 서서만  
지하철을 타왔다. 이제는 슬슬 앉아서 지하철을 타보고 싶어! 당신의 사명은 지하철에  
앉아서 타는 것이다.

시나리오 내에 오타쿠적인 웃코미가 많습니다. 열람하실 때 손발 오글거림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플레이하실 때 묘사는 덜어내셔도 괜찮습니다. 양심이 있는 **PC**를 데려오시는 걸  
추천드리며 양심이 없는 **PC**를 데려오셨을 경우 시나리오가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엔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면표

1. 어린아이가 운다.
2. 택시를 생각해보고 있는데... 카드값 알림이 왔다.
3. 업무 카톡이 온다.
4. 갑작스럽게 지하철이 한쪽으로 쏠린다.
5. 지하철 안에 광고가 다닥다닥 붙어있다.
6. 청소하는 분이 지나간다.

광기카드를 원하는 것으로 총 4장을 준비한다.

도입

마스터장면

장면 이름: 대기

당신은 회사원이다. 오늘은 특히 일에 치이는 하루였다. 상사에게 불려간다거나, 직장 동료가 실수한 것을 같이 수습해줬다거나... 아무튼 굉장히 피곤하다. 그런 당신은 지금 지하철을 타기 직전이다. 지하철의 문이 열리니...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나온다. 하지만 신기한 것은 그렇게나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왔는데도 여전히 만석으로 보이는 지하철 안이다. 아무튼 당신은 그런 지하철에 타야 한다. 당신은 지하철 안에 몸을 구겨넣는다. 당신이 가야 할 정거장은 10정거장이 넘는다... 게다가 이미 피곤한 당신은 지금 당장 자리에 앉고 싶다. 하지만 자리에 앉으려면 일단 좌석 앞에 서있어야 해! 하지만 지금은 입구 쪽이다! 아직 갈 길이 멀어!

핸드아웃

입구에서 좌석으로 간다를 공개합니다.

마스터장면

장면 이름: 약간 그런거죠 길가다가 마주친 두 사람이 서로 길막해서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 조건: '조금 더 기다려본다'의 비밀을 조사했다

그 때 바로 앞의 자리에 자리가 났다! 드디어 앉을 수 있게 되는 건가, 싶을 때... 옆의 사람이 앉으려고 한다. 앉으려고 하던 사람은 갑자기 우뚝 서곤 당신의 눈치를 본다. 서 있는 사람은 원래 자신의 바로 앞의 자리만을 자신의 절대영역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영역이 반씩 겹친 것이었다. 그렇다. 딱히 누구가 앉아야 할 자리라고 정할 만한 게 없는 것이다. 어떻게 할까? 자리를 양보해야 할까? 자리를 양보하면 그는 자리에 앉는다.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앉으려고 하면 문득 임산부 배지를 차고 있는 것이 보인다. 아아~ 이걸 어쩔 수 없어~!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쓰레기가 되고 만다고~! 그렇게 당신은 자리를 양보하게 된다. 결국 이렇게 된 건가...

마스터장면

장면 이름: 딜레마

조건: '입구에서 좌석으로 간다'의 비밀을 조사했다

좌석 앞으로 오고도 당신은 가만히 계속 서 있었다... 그것은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임산부석까지 꽉꽉 채워 앉은 사람들... 그리고 자리를 얻지 못해 서 있는 당신... 마치 계급사회처럼... 그런 생각까지 흘러가고 있을 때쯤, 임산부석의 한 사람이 일어난다. ...안 돼! 앉을 수 없어! 저긴 임산부석인걸! 당신이 못 앉고 있으면, 임산부석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임산부석으로 옮겨 앉는다. 자리가 났다! 그런데... 상대방이 잘못된 행동을 해서 나에게 득이 될 상황이 온다면, 그 기회를 잡는 건 옳은 일일까? 당신이 잠깐 망설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자리에 앉는다. 망설이지 않았더라도 썩새게 누군가가 자리에 앉는다. 눈앞에서 자리를 놓친 **PC1** 풍경으로 공포판정. 이렇게 된 거 사람 구경이나 할 겸 주변을 둘러봐도 괜찮겠다. 핸드아웃 핸드폰을 보고 있는 사람, 조금 더 기다려본다를 공개한다.

#### 마스터장면

장면 이름: 본 페이지 시작

조건: 4사이클이 끝났다

그 때 대학생쯤으로 보이는 어떤 사람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외친다. “오오! 그분이 강림하실지어니 모두가 그 이름에 경배하고 두려워해라!”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다. 뭐야? 뭐래? 몰라. 대학생이 앉아있던 자리에 자연스럽게 앉는 사람도 있다. 그 때 창문이 전부 어두워진다. 아직 터널을 지날 때가 아닌데? 분명 지상일 텐데? 그리고 바닥에서 빨간 빛줄기가 올라온다. 빛줄기를 눈으로 쫓아보면 바닥에는 커다란 빨간색의 별 모양이 빛나고 있다. 이... 이건 마법진? 사람들은 그제서야 흥미로워하면서 사진을 찰칵찰칵 찍는다. 이런 특수효과를 쓰다니... 영화 촬영인가? 그 때 사람들이 마치 마법처럼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한다. 하나, 둘, 열, 스물, 서른... 결국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고 후드를 꼭 눌러쓴 사람들과 대학생만이 남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PC1**도 남았다. 대학생은 당신을 가는 눈으로 쳐다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친다. “워, 워야! 너는 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있는 거지...?!” 샷대질을 하더니... “설마! 지하철에 10일도 넘게 못 앉은 거냐!!” 뭐지 이 자식은? 놀리는 건가? “설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존재할 줄은 몰랐는데...” 놀리는 것도 정도가 있지... “어쩔 수 없지! 물리적으로 제거해주마!” 안 돼! 제거당하면 지하철에 앉아서 가지 못하게 된다고! 클라이맥스 페이지로 넘어간다.

#### 핸드아웃 목록

입구에서 좌석으로 간다

입구에서 몸을 움직여 엄청난 인파를 뚫고 간다.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지나갈게요 삼중 콤보를 쓸 수 있는 타이밍.

입구에서 좌석으로 간다 비밀

쇼크 없음

휴! 무사히 좌석 앞으로 가서 서 있을 수 있었다. 마스터 장면 ‘딜레마’가 발생한다.

핸드폰을 보고 있는 사람

무심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돌아서 있어서 핸드폰 내용이 다 보인다. 이, 이건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야! 그냥 보였다고!

핸드폰을 보고 있는 사람 비밀

쇼크 **PC1**

핸드폰으로 그 사람은 메시지를 하고 있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왕님이 오늘 군림하신다. 사람들의 목숨을 제물삼아...’

놀람으로 공포판정.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 때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당신에게 눈짓한다.

핸드아웃 옆에 서 있는 사람을 공개한다.

조금 더 기다려본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면 자리가 날 거야...

조금 더 기다려본다 비밀

쇼크 없음

드디어...?

마스터장면 ‘약간 그런거죠 길가다가 마주친 두 사람이 서로 길막해서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이 발생한다.

옆에 서 있는 사람

당신에게 찡긋찡긋 윙크를 하고 있다... 원데?

옆에 서 있는 사람 비밀

쇼크 PC1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는 쪽지를 넘기고 사라진다.

의식시트 의식을 저지하는 의식을 공개한다.

의식을 저지하는 의식

1. 쪽지를 들어올린다. 폭력 분야 임의 특기로 판정, 조건 지하철에 10일동안 못 앉은 사람, 패널티 다음 라운드동안 회피 불가

2. 쪽지를 잘게 찢는다. 폭력 분야 임의 특기로 판정, 조건 지하철에 10일동안 못 앉은 사람, 패널티 광기카드 한 장 얻음

클라이맥스 페이지즈

적은 사교도 A, B로 2체, 차례대로 속도 6, 5에 위치한다. 행인 데이터를 사용하며, 트릭을 추가한다. 사교도 A는 트릭으로 공격을 시도하고, 사교도 B는 상황을 보기를 하여 PC의 의식 판정에 마이너스 수정을 가한다.

엔딩

의식에 성공했다

사교도들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머리를 감싸맨다. 그리고는 외친다. “크, 크흑! 다음번엔 반드시...! 두고 보자 지하철에 10일째 앉아서 못 탄 사람 -!” B급 악역다운 대사다. 어이, 틀렸어. 지하철에 11일째 앉아서 못 탄 사람이라고. 사교도가 가고 나면 눈을 한 번 깜빡하고 보니 어느새 주변에는 사람들이 뻑뻑히 들어차있다. 드디어 앞에 자리가 났다! 그러고보니... 어느새 내려야 할 역이다. 아아... 오늘도 앉아서 타지 못했어... 하지만 당신은 지하철의 평화를 지켰다.

의식에 실패했다

아아... 의식이 멀어진다. “지하철에 10일째 앉아서 타지 못했으니 이런 결과도 당연한 거랄까. 잘 가도록 해, 마지막 희생자.” 사교도 대학생의 말이 귓가에 울려 퍼진다... 당신은 지하철을 지키지 못했다.